

‘자연과 사람의 어울림’ 祝祭

제9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10만여 관광객 찾아



‘자연과 사람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9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관광객 10만여명이 몰렸다.

‘자연과 사람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9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관광객 10만여 명이 몰려 성공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일과 9일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과 명성산에서 개최된 이번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산정호수 주민들과 포천시봉산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간주도 축제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줬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는 공예왕 선발대회 및 포천 농축특산 명품쇼, 무형문화재 오세철의 풀피리 공연과 태국 로얄 아미밴드의 민속 공연이 어우러지는 한·태 문화마당, 명성산 7080 콘서트, 억새꽃축제 길놀이, 억새달집태우기 등이 펼쳐졌고, 부대행사로 우리 콩 두부만들기, 나만의 캐리커처그리기, 행복사주팔자보기, 가족건강수지침체험, 향토음식시식 등이 마련되는 등,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됐다.

또 지난 여름 2005 포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을 통해 조성된 4천48평 규모의 산정호수 조각공원이 8일 개막식을 갖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억새꽃 축제의 가장 큰 이벤트는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역시 역새산행이다. 산행의 반환점은 바로 5만여평에 펼쳐진 역새밭이다. 산정호수를 끼고 가을 억새꽃이 만발한 명성산 기슭을 따라 왕복 8km 산길을 오르내리는 등반 대회는 8일과 9일 각각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특히 8일에는 세계 최초로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산악인 박영석 씨가 팬 사인회를 가진 뒤, 관광객들과 함께 명성산을 등반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문체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주차 난 해소를 위해 역새꽃 추진위원회는 문암삼거리 군부대 연병장에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축제기간 동안 이틀간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저녁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해 관광객들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포천시 주도로 치러왔던 억새꽃 축제를 공무원보다는 산정호수 관리지부를 비롯한 아마추어 무산연맹 포천사무소,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가 민간주도형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 이번 축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16면>



제46회 한국민속예술 축제는 제주도 하귀리 민속보존회의 귀리걸보리 농사일소리가 대통령상 수상해 상금으로 1천만원을 수여받는 것을 끝으로 대단원 막을 내렸다.

제주도 ‘귀리걸보리 농사일소리’ 대통령상

한국민속예술제 21개팀 출전 열띤 경연

제46회 한국민속예술 축제는 제주도 하귀리 민속보존회의 귀리걸보리 농사일소리가 대통령상 수상해 상금으로 1천만원을 수여받는 것을 끝으로 대단원 막을 내렸다.

2일부터 4일까지 열띤 경연의 장을 벌인 한국민속예술제는 각 지방의 정래민속을 발굴하고 보존해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KBS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포천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16개 광역시·도와 이북5도를 대표하는 21개팀 1천377명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 첫날 부산시를 대표하는 동래학춤을 시작으로 대구 달성하민들소리, 전북 전주기잡놀이, 인천전통편사놀이, 함북 애원성, 평남 평양검무, 대전 유

성전민고을 상여놀이, 함남 돈돌놀이 등 11개 종목의 경연과 전남 해남우수영 강강술래, 포천메 나리 등 2개 종목의 시연이 함께 펼쳐졌다. 대회 둘째날 공연은 전남 순천낙읍성 두레놀이, 경남 통영삼현육각, 서울 애오개본산대놀이 등 6개 종목의 경연과 경기 광명농악, 경남 불모산영산재 등 2개 종목의 시연에 이어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번 한국민속예술 축제 기간 동안 민요, 국악, 민속놀이, 무용 등 흥겨운 민속예술 경연과 함께 KBS특집 국악한마당 라디오 공개방송, 포천시립민속예술단과 경기도립무용단, 일본 호쿠리도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민속예술단의 초청공연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테마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포천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줬다.

또 시상식에서는 전남 순천낙읍성 두레놀이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문화관광부 장관상은 대구 달성하민들소리와 전북 전주기잡놀이, 은성인 경기도지사상은 함북 애원성과 황해도 거철백인영감각, 광주광역시 광주월계상여소리, 동상은 강원도 거북문지장목판치기와 부산광역시 동래학춤, 대전광역시 유성전민고을 상여소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 장려상인 포천시장은 인천광역시 인천전통편사놀이를 비롯한 충북 오티별신제, 경북 구미우물푸름, 경남 통영삼현육각, 함남 돈돌놀이 등이 차지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개교 70주년 청성초 포천최고 명문

총동문회 주관 가을 한마당 큰 잔치 열려

개교 70주년을 맞는 청성초등학교는 지난 8일 학교 운동장에서 동문과 전직 교장, 학부모,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학년도 개교 70주년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동 총 동문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이한철 총 동문회장, 양재선 운영위원장, 연관홍 초대 동문회장, 이진모 5군단 참모장 등 청성초등학교 선후배 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무지개 따오기, 캣거루 릴레이, 태권무 등 식전행사에 이어 기념식에는 1938년 제1회 졸업생인 연관홍씨와 2회, 3회 졸업생 등 1회 졸업생부터 67회 졸업생까지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청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또 재학생들의 경기와 동문들의 줄다리기, 동문 가요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됐다. 청성초등학교 총 동문회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청성 70년사’라는 책을 발행해 동문들에게 배부하고 동문들의 단합과 미래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학생들이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한철 총 동문회장은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서 청성 동문들이 많이 배출되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덕분”이라면서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선생님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 동문회장은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5만6천여 동문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연료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훌륭한 인재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난 8일 청성초등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총동문회 기금으로 개축한 교문커튼식을 가졌다.

인기가수 불우이웃돕기 무료 콘서트

윤수일 임창제 유익종 출연, 22일 반월아트홀

불우이웃을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산악인을 위한 가을 콘서트가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에는 7~80년대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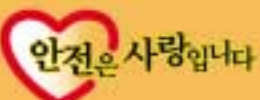
가요계 인기를 누렸던 윤수일을 비롯한 이영화, 유익종, 임창제, 위일청, 나훈아 등이 출연해 공연을 펼친 예정이다.

불우이웃돕기 산악인을 위한 가을 콘서트는 포암산악회를 비롯한

거북산악회, 중앙산악회, 각출산악회, 지장 산악회, 신북산악회, 신북 여성산악회, 산사람산악회 등이 주최해 불우이웃을 돕기 기금 마련과 산악단체간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된다.

한편 이번 콘서트 입장료는 무료이며 모금된 기금은 행사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포천신문에 기탁해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아빠
건설현장에서 하시는 일이 힘드시지만
제가 있어 행복하네요.
아침마다 “안전하세요” 인사를 하지만
엄마는 항상 아빠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언제나 “안전”이 먼저래요.
안전은 사랑이니까요.
저는 이런 아빠를 사랑해요.

안전! 가족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빠, 아시죠! 오늘도 안전!